

[기획] >> 4면
인공지능과 함께 가는 번역

[기획] >> 5면
지하캠퍼스 시설 문제

[사회문화] >> 8면
외래종의 무분별 방생

[사회문화] >> 9면
언론 양극화의 심화

AI가 던진 질문, ‘언어의 외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AI 기술의 발전으로 번역의 의미가 바뀌었다. 70년간 외국어 교육의 상징이었던 우리학교의 위상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그렇다면 AI 시대를 맞이한 국내의 다른 대학들의 교육 현장은 어떨까. 그리고 우리학교가 어문계열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생성형 AI가 가져온 위기와 그 속에서 우리학교가 찾아야 할 새로운 길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이해봄 기자 11haebom@hufs.ac.kr

우리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최종 경쟁률 18.50대 1... Language & AI융합학부 논술전형 183.71대 1 ‘최고’

이번 우리학교 202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총 2,088명 모집에 38,620명이 지원해 최종 경쟁률 18.50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17.69대 1)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이번 수시모집은 △무전공 입학 확대△첨단융합학부 운영△학습자 설계 융합전공 등 학생 주도형 학사제도 개편을 통해 △글로벌 역량△언어△인공지능을 결합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시하며 수험생과 학부모의 큰 관심을 끌었다.

전형별 경쟁률은 △학교장추천전형 5.97대 1△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2.89대 1△학생부종합전형(SW인제) 9.91대 1△학생부종합전형(서류형) 8.10대 1△기회균형전형 8.36대 1△논술전형 51.11대 1로 집계됐다. 특히 △논술전형△학생부종합전형(면접



형)△학생부종합전형(SW인제)은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크게 올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모집단위는 Language & AI 융합학부였다. 해당 학부는 논술전형에서 183.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최고 경쟁률을 차지

했다.

한편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1단계 합격자는 오는 11월 10일 발표되며 면접고사는 11월 15~16일 논술고사는 11월 22과 23일에 서울캠퍼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 모집단위별 고사 일정은 우리학교 수시 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우리학교,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 초청 ‘2025 HUFS특강’ 개최

지난달 16일 우리학교 HUFS특강 특별운영위원회는 서울캠퍼스 도서관 힐라아쿠슈네트홀(Hilla Acushnet Hall)에서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이하 김 대표)를 초청해 ‘2025 HUFS특강’을 개최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총학생회△HUFS특강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특강은 △국제통상△인문학△외교 등 우리학교가 가진 전통적 강점에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Big data)와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의제를 접목했다. 이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은 △재학생△졸업생△지역 청년들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진로 역량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강연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지난 2006년 네이버(Naver, 당시 NHN)에 합류해 데이터정보센터장과 데이터총괄 등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 2023년부터 네이버클라우드(Naver Cloud) 단독 대표로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만들어가는 AI 생태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AI 기술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으며 소버린(Sovereign) AI의 개념을 비롯한 다양한 국내외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기술은 언제나 인간을 향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

며 “AI 산업을 발전시킬 인재들이 우리학교에서 배출돼 AI 생태계에 다양성을 더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는 김인경(영어·영어 24) 학우가 맡아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으며 그는 “대표님의 강연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 역시 “취업을 고민하는 시기에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5.09.17(수) ~ 10.01(수)	2025.11.19(수) ~ 12.03(수)
고사장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예정	2025.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01.02(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의회행정학과(공공정책, 의회행정)

나.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국가안보)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군사 안보 전문 분야(예:군, 정보기관, 국가 안보 분야 등)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홈페이지-입학안내-대학원 입학 안내-대학원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 및 시간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장학금(장학금은 입학 후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됨)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성적우수 장학금/공로 장학금/

학비감면 장학금/원우회 일원 장학금

※ 외교안보학과 국가안보전공: 입학성 전원 정규학기 등록금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 평일수업 19시 시작(본 대학원 내 교과당 가능)

다. 온라인 병행수업 진행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p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TEL. 02-2173-2428 FAX. 02-2173-3358

(우)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공공리더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Global and Public Leadership

디지털융합인재를 양성하는 GMC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특별·일반 전형)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 전형 일정	일반 전형	장소
원서접수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유웨이어플라이 원서접수
서류제출	2025.9.22(월) ~ 10.2(목)	2025.11.17(월) ~ 11.28(금)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대학원 111호) 우편제출은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함
면접대상자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개별 공지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2025.12.13(토) 10:00	화상면접
합격자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홈페이지에서 확인
합격자등록	2025.11.3(월) ~ 11.7(금)	2025.12.29(월) ~ 2026.1.2(금)	우리은행 전국 지점 가상계좌 납부가능

* 위 전형계획 및 시험일정은 전원 총학생회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미디어비즈니스 · 엔터테인먼트 - 오프라인 과정

나. 디지털미디어융합전공 - 온라인 과정

3. 지원자격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화상면접(추후 공지)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mc.hufs.ac.kr) 및 모집요

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282 FAX. 02-2173-3358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글로벌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2025 아시아위크 성황리에 개최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국제학사 앞△오바마홀△잔디광장에서 2025 아시아위크(2025 AsiaWeek)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언어문화대학△일본학대학△중국학대학의 교류 행사인 이번 행사는 세 단과대학 간 △단합△발전△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3년 만에 돌아온 본 연합 행사는 △무대 공연△부스 체험△스포츠 경기△친목도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평상시 쉽게 친해질 수 없었던 세 단과대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여러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스 체험은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몽골어과△베트남어과△아시아언어문화대학△인도어과△아시아언어문화대학△중국학대학△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에서 △전통 의상△캔다마(けん玉)△항주머니 제작과 같은 국가 고유 문화체험과 △로쿰(lokum)△빙판(涼粉)△연유커피스크림소다△짜이(Chai)와 같은 특색 넘치는 음식들을 준비했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인해 양일로 예정됐던 체험들은 첫날에만 진행됐다. 이에 대해 김예진 일본학대학 학생회장은 “우천으로 인해 준비한 부스 이벤트 및 운영을 진행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그래도 1일차 부스를 찾아주신 많은 학우분들이 웃는 얼굴로 체험하고 계셔 다행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스포츠 경기론 △농구△루미큐브(Rummikub)△배드민턴△축구△피구△FC 온라인이 진행됐다. 지난달 16일부터 3일간 진행된 스포츠 경기에선 △농구 중국학대학 소모임 ‘앵그리판다’△루미큐브 인도어과△배드민턴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축구 중국학대학 소모임 ‘페이후’△피구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고나영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학생회장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종목을

구성하는 데 깊은 고민이 있었으나 다행히 희망 종목 가수요조사에 참여해주신 학우분들 덕분에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세 단과대 모두가 합심해 심판과 실무진을 구성하는 등 상호 간의 협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번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인 19일엔 무대 공연이 진행됐다. △개인 참가자△개인 밴드△단과대 밴드부△외대풍물연합회 등 총 8팀이 무대에 올랐다. 당일 비가 많이 내렸음에도 공연 운영진이 우비와 방석을 나눠주는 등 조치를 취해 편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한수연 중국학대학 학생회장은 “비가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셔서 놀라웠다”며 “참가자들과 실무진들이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 좋았다”며 참가자 및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우리학교 박진균 교수팀, 차세대 소듐 이온 배터리 신소재 개발... 국제학술지 스몰(Small) 표지 논문 선정



▲박진균 우리학교 화학과 교수

재 개발에 성공했다.

해당 기술은 기존 배터리 제작 시 원재료로 사용된 △니켈(Nickel)△리튬(Lithium)△코발트(Cobalt)를 △망간(Manganese)△소듐△철으로 대체해 보다 높은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례로

주재료인 소듐의 경우 소금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던 점에서 제작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박진균 우리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교수 연구팀이 백승민 경북대학교 화학과 교수팀 및 오제민 동국대학교 에너지신소재공학과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 저장장치로 주목받는 소듐(Sodium) 이온 배터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음극 소

연구진은 해당 연구에서 전자 끌어당김 효과가 뛰어난 벤조티아디아졸 유닛(Benzothiadiazole Unit) 유닛과 플루오린(Fluorine) 원자를 유기 나노시트(Nanosheet)에 도입해 밴드갭(Band Gap)과 전자 밀도를 낮추고 강한 영구 쌍극자를 형성했다. 이를 통해 고체 상태에서 소듐 이온이 접근할 수 있는 활성 사이트(Site)를 크게 늘린 신물질

을 구현했다. 또한 플루오린화된 유기 나노시트와 비플루오린화된 나노시트를 비교한 결과 플루오린화된 유기 나노시트는 소듐 이온과의 상호작용은 약해졌지만 이온 및 전자 운반체의 전도성이 크게 향상돼 전기화학적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100 mA/g 전류 밀도에서 약 637 mAh/g의 가역 방전 용량을 기록했으며 5,000회 이상의 충·방전 후에도 구조적 안정성과 우수한 속도 특성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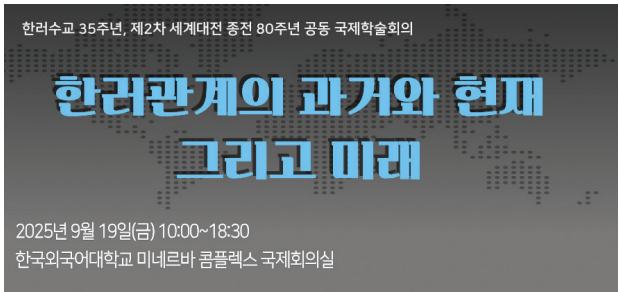
했다.

연구진은 본 연구 결과를 두고 “분자 내부의 쌍극자 조절을 통해 유기 나노시트의 전하 이동과 장기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이번 연구가 차세대 소듐 이온 배터리 음극 소재 개발에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에너지 저장장치의 고성능화와 장기 수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국제저명학술지(SCI) 중에서도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12.1으로 화학 최고 권위지 중 하나인 ‘Small’에 지난달 11일에 게재되었으며 해당 권호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 한러 수교 35주년·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는 지난달 20일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 및 (사)RIO Institute와 공동으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한러 수교 35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해방 전후 시기의 러시아 역할을 재조명하고 지난 35년간의 한러 관계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평가하며 향후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러시아△우리나라△중앙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27명의 국내외 연구자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개회식엔 김춘식 우리학교 부총장과 이인영 국회의원에게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nnady Vladimirovich Zinoviev) 주

한 러시아 대사가 기조강연을 맡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대한 소련의 역할 그리고 한러 관계 및 현대 국제질서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어지는 세션(Session)과 라운드 테이블(Round Table)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 재진입 전략과 한러 수교 35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비롯해 △극동 개발△북극항로△에너지·우주 분야 협력 가능성이 논의됐다. 또한 △냉전 시기 왜곡된 붉은 군대의 이미지△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군의 실제 역할에 대한 재평가△지정학적 변화 속 한러 관계의 항방△차세대 에너지 수요 대응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최우익 우리학교 러시아연구소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러 관계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 협력의 지혜를 모으는 이번 학술회의가 학문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우리학교, 태국 무에타이 전설 부아카오 초청 시연·원포인트 레슨 개최

지난달 5일 우리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태국어통번역학과△태국학과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의 후원을 받아 주한태국대사관 및 주한태국문화원과 함께 본교 오바마홀에서 태국 무에타이(Muay Thai) 시연 및 원포인트 레슨(One-point lesson)을 개최했다.

무에타이는 신체 아홉 부위를 무기로 활용하는 태국의 전통 무예이자 호신술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문화△신앙△음악△철학이 어우러진 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이다. 현재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으며, 태국의 국기(國技)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는 무에타이의 전설 부아카오 반차멕(Buakaw Banchamek) 선수가 특별 초청되어 학생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에타이 시연과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사전 신청은 단 3일 만에 90명을 넘어 서며 무에타이와 부아카오 선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

을 보여주었다.

오종진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학장은 환영사에서 “부아카오 선수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를 넘어 태국 문화의 상징이자 세계에 태국의 힘과 정신을 전하는 문화 외교의 주역”이라며, “오늘 행사가 한국과 태국의 학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양국 우정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무에타이 기술뿐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과 철학·문화적 가치를 체험하며 새로운 도전과 영감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태국 정부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태국 전통 무술을 통해 태국 문화의 깊이와 정신을 국내에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승원 기자 08seungwon@hufs.ac.kr



성적 제도 개선의 타협점은 어디? 변화 요구 앞에 선 우리학교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며 대학가 성적 제도도 이에 맞춰 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학교도 성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학생 측의 요구가 제기되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가 학교 측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성적 제도 개선의 대

외 동향과 우리학교의 현황△현행 성적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우려△학교 측이 밝힌 성적 제도에 대한 입장△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성적 제도 개선의 대외 동향과 우리학교의 현황

지난 6월 26일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에서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의 성적 비율 개정 소식을 전하며 우리학교의 성적 제도도 변해야 한단 게시글이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영일교육컨설팅(Consulting)이 지난 2023년 1학기 기준 상위 15개 대학을 분석한 결과 서강대는 재학생 중 전공과목에서 A 등급 이상을 받은 비율이 27.8%로 가장 낮았다. 이후 서강대는 학생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지난 6월 25일 A 등급 비율을 40%로 높이는 등 학사 제도를 개정했다.

우리학교 상대평가 비율에 대한 불만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8년 12월 에타에 게시된 “A 등급 비율이 서울권 대학의 최하 수준이다”는 비판의 글은 당시에도 큰 화두였다. 이후 우리학교는 지난 2021년 2학기 A 등급 비율을 30%에서 35%로 A 등급과 B 등급을 포함한 비율을 65%에서 70%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2023년엔 수강생 10명 이하 강의를 A 등급 비율 40% 이내에서 절대평가로 변경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낮은 성적 비율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학교와 유사했던 서강대마저 학칙을 개정하자 해당 의제가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이다.

설캠 총학의 교육 분야 공약 중 하나인 ‘성적 평가 방식 비율 개선’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설캠 총학은 해당 공약에 따라 이번 해 5월 성적 평가 방식 개선 사업인 ‘학사제도 CPR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 결과를 토대로 설캠 총학은 지난 8월 교무처장 및 총장과의 면담에서 성적 비율 완화와 절대평가 도입 확대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현행 성적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과 우려

학생 측은 우리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 엄격한 상대평가 성적 제도를 시행한다고 주장한다. △동국대학교△성균관대학교△한양대학교△홍익대학교(이하 홍익대) 등의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전체 수강생 중 40% 혹은 그 이상의 비율 이내로 A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설캠 총학의 ‘총장 송부 성적평가방식 완화 요구안’의 근거 중 하나는 다른 대학에 비해 상대평가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우리학교의 성적 평가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은 좋지 않다. 외대학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 현재 상대평가 등급별 비율의 만족도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매우 불만족(36.4%)△불만족(34.1%)△보통(18.2%)△만족(11.4%)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A 등급 비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학교가 성적 제도를 바꾸는 추세인 것처럼 우리학교도 A 등급 비율을 50%로 늘리면 좋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우리학교의 절대평가 채택 조건이 제한적인 점도 지적된다. 우리학교 절대평가 채택의 조건은 △군사학△교직 및 교육부 지정 교과교육영역 과목△수강생 10명 이하△이공계 실험실습△College English 영역 S 등급 반 및 A 등급 반△Communicative English 진리반 및 대학영어 진리반 과목으로 규정돼 있다. 즉 위에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곤 절대평가 채택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외대학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88.7%는 ‘절대평가를 채택한 강의가 적거나 매우 적다’고 응답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필수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의 성적 평가 방식이 동일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목이라면 최소한의 성의와 성실함 정도만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우려하는 점은 우리학교의 현재 성적 제도가 향후 진로 설계에 불리하게 작용한단 것이다. 외대학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 성적 제도로 인해 다른 대학보다 취업 및 진학에 있어서 불리하다고 느끼시나요?”란 질문에 86.4%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변했다. 먼저 취업 측면에선 취업 시장 내 중요한 평가 기준인 학점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우리학교 학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단다. 즉 우리학교 학생이 타 학교 학생과 동일한 정도의 학업 성취를 이뤘더라도 이들에 비해 실제 취득하는 학점은 더 낮을 개연성이 크다. 외대학보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응답자는 “타 학교에 비해서 A 등급 비율이 낮기 때문에 취업 등 성적이 중요하게 사용되는 곳에서 불리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응답자는 “타 학교 학생들과 학점으로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학교 성적 평가 기준이 불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 외 다른 응답자 역시 “현행 성적 평가 제도는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평가 제도이다”고 주장하며 “계속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이다”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학교는 인문 및 사회 계열 특화 대학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그러나 학점이 주요 평가 요소로 활용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선 우리학교의 엄격한 현행 성적 평가 기준이 타 학교보다 불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이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026학년도 입시 모집요강 기준 학부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리트(LEET) 점수 반영 비율과 동일한 38.5%이다.

◆학교 측이 밝힌 성적 제도에 대한 입장

설캠 총학에 따르면 학교 측은 상대평가 비율의 경우 제도 개선에 행정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비율 제도는 대학의 공신력과 직결된 만큼 단기간 내 잦은 변경이 어렵다. 또한 학점 인플레이션(Inflation)*으로 인해 우리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모

두 외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단 우려도 있다. 실제로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성적의 신뢰도가 하락한 경우가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입시에서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점의 실질 반영 비율을 42.29%에서 21.3%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한 대학교 교무처 관계자는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학점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데다가 교수들의 반발도 매우 커 학교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은 절대평가 확대 시 교수 재량에 따른 성적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입장이다. 교수에 따라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성적을 주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으며 이를 행정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에 성적 평가 완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학생들의 학업 충실도가 낮아질 수 있단 문제도 따른다. 이에 대해 이전에 설캠 총학이 총장과 진행한 면담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 측은 성적 비율 완화가 교육의 본질적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양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될 때의 문제도 제기된다. 우리학교 C 교수에 따르면 “교양 과목에서 유교결석계를 2회 채워 쓰는 학생이 비교적 많다”며 절대평가 전환 시 출석 성실도에 주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C 교수는 “교양 과목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동기 부여에 따라 성적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절대평가가 어렵다”며 강의 참여도에 대한 의견 또한 덧붙였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들의 불만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시대 변화와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한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상대평가 비율의 재조정으로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른 대학들이 A 등급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했듯이 우리학교 또한 최소한 40%까지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로써 학점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적 부담 및 취업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학교 재학생 D 씨는 우리학교 성적 제도에 대해 “비율을 채워주지 않고 플러스(Plus)도 적게 붙여 준다”며 “교수 재량인 것을 이해하나 그렇다면 학교 측에서 비율이라도 올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C 교수는 등급별 비율 개정에 대해 “현재 기준점을 조금 높이는 안에 찬성한다”며 “아주 작은 점수 차로 등급이 갈리는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학사 자율화를 통해 교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것 역시 중요한 대안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일괄적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반면 △고려대△연세대△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화여대)의 경우 우리학교보다 유연한 성적 평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먼저 고려대와 연세대는 각각 지난 2015년 및 2019년 이후 상대평가 원칙을 폐지했다. 연세대의 경우 통일된 성적 평가 방식이 아닌 각 학과가 개별적

인 성적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 수강편람에 따르면 다수의 교양 과목이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교수가 성적 평가 방법과 등급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교수자율평가를 채택한다. 예컨대 이화여대 수강편람에 따르면 절대평가뿐만 아니라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혼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해 2학기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와 한 강익계획서에 따르면 “등급 인원수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한편 “등급의 점수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평가 방식을 혼용한다. 한편 서강대와 홍익대는 이번 해 성적 평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각각 교양 과목과 4학년 전공 수업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외대학보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학교 학생들은 교양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약 86%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E 씨는 절대평가 확대를 통해 “줄 세우기 대신 배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 확대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단순히 학점을 쉽게 취득하려는 의도가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학교 측에 제시해 협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지난 2021년 A 등급 비율 조정 후 지난 2023년 설캠 및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가 A 등급 비율을 50% 이내로 A 등급과 B 등급을 포함한 비율을 80% 이내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재 설캠 총학은 새로운 전략으로 “보다 정교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즉 단순히 A 등급 비율 상향에만 집중하기보다 단계적인 개선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소규모 혹은 어문 과목부터 성적 평가 완화를 점차 진행해 학교 측 입장인 학점 인플레이션이나 제도의 남용에 대한 우려를 줄일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설캠 총학은 교무처 및 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개선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발판으로 부분적인 개선부터 현실화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요구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반대 측의 의견 충돌 속에서 모두에게 유의미한 타협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학점 인플레이션(Inflation): 학생들의 학점이 상향 평준화되는 현상

AI가 번역을 잠식하는 시대, 우리학교 어문 계열의 길을 묻다

지난 2022년 11월 OpenAI가 대화형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챗지피티(Chat GPT)를 공개한 이후 전 세계는 생성형 AI 열풍에 휩싸였다. 불과 1~2년 만에 AI의 언어 처리 능력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했으며 파파고(Papago)와 답엘(DeepL) 같은 번역 프로그램은 단순한 보조 도구를 넘어 전문적인 영역까지 넘보

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차원 도약은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온 우리학교의 정체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생성형 AI와 번역의 현황 및 우리학교 학생들의 반응△위기의 원인과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생성형 AI와 번역의 현황 및 우리학교 학생들의 반응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은 번역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기계 번역이 단어 대 단어의 치환에 가까워 어색한 직역 투를 벗어나지 못했다면 현재의 AI 번역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맥을 파악하고 자연스러운 어조와 스타일까지 구사하는 단계까지 진화했다. 이로 인해 기업에서 진행되는 상당수의 정보 전달 목적의 텍스트 번역이 AI로 빠르게 대체되며 어문계열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불안감은 실제 언어 관련 산업의 변화와 맞물려 더 증폭되고 있다. 시장 분석 기관 님지(Nimdzi)에 따르면 전 세계 언어 서비스 산업은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내부 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기계 번역 시장은 연평균 13.5%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단순 텍스트 번역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AI 번역 결과물을 감수하고 수정하는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이 언어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떠올랐으며 현지 문화에 맞게 콘텐츠를 변용하는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 전문가 수요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곧 어문 전공자에게도 기본적인 기술 이해도 및 AI 협업 능력이 필수가 됐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에서 진행 중인 교육이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우려로 인해 어문 계열 학생들은 전공 외의 진로를 탐색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외국어 교육이 중심인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어문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5%가 '생성형 AI가 미래에 인간 번역가나 전문가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란 점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안감은 역량 개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중 33.3%의 학생들은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전공 외 다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의 위기감과 달리 학교 교육은 이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교의 전공 커리큘럼이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주는 데 충분한가'란 질문에 응답자 전원이 부정적으로 응답해 교육 과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다수의 학생이 전공 공부만으론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단 판단하에 코딩(Coding)이나 데이터 분석 등을 추가로 공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

AI 번역 기술의 대중화가 우리학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시스템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은 특정 언어와 문화권에 대한 깊이 있는 지역학 강의를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AI 및 언어공학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업은 극히 제한적이다. 같은 어문계열 안에서도 학과별로 AI 교육 도입 수준에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인도어과는 'AI 힌디어'란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AI 번역과 자신의 번역을 비교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ELLT 학과는 이론 과목 언어 과목 부문에 영어 데이터 처리를 위한 프로그래밍과 언어공학개론 등을 개설했다. 그리스·불가리아학과에선 스테이터 시각화 △AI 통번역 △VR 전시 기획 역량 강화 관련 강의를 개설한 바 있다. 하지만 다수의 소수어과(△루마니아△폴란드△헝가리학과 등)에선 AI 및 언어공학 관련 교과목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들 대부분의 전공과목은 전통적인 커리큘럼으로만 구성돼 있다. 이처럼 학과별로 발생하는 교육 격차는 많은 학생들이 디지털 언어 서비스 산업의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AI 시대에 언어 전공자들의 경쟁력 저하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학교엔 컴퓨팅 사고와 같은 소프트웨어기초 교양 필수 과목이 존재하지만 이는 대부분의 어문계열 학생들에게 전공과 동떨어진 별개의 과목으로 여겨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기초 교양 과목만으론 어문학적 지식을 데이터로 분석하거나 AI 모델을 활용해 지역학 자료를 연구하는 등 전공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해 시너지(Synergy)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육 현장의 보수적인 분위기다. 통번역이나 지역학 리포트 작성 과정에선 생성형 AI의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AI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정확한 질문을 통해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며△결과물의 오류를 판별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대신 AI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AI 시대를 살아갈 필수 역량인 AI 리터러시(AI Literacy)를 기을 기회를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취업 시장의 변화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든다. 단순 번역 일자리가 AI가 초벌 번역한 결과물을 수정하는 포스트에디팅 업무로 대체되는 현실에서 AI 활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졸업생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AI 시대에 교육 현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생성형 AI의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오히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하나의 학습 보조 도구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질문법△윤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기술 활용법△AI 생성 결과물 오류 분별법등과 같은 AI 리터러시 교육이 절실하다. 실제로 통번역대학원 차원에선 △기계번역 전문 강사 초빙△로컬라이제이션△컴퓨터보조번역 등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융합 교육을 선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이 단순히 대학원 수준에서 그치거나 단발적인 특강에 머물러선 안 된다. 모든 학부생이 전공 학습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교과과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국내외 여러 대학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에선 서강대학교가 인문학적 상상력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목표로 하는 아트앤테크놀로지(Art & Technology) 전공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대학교 AI학과 역시 타 전공과의 연계를 통해 인문사회 분야의 AI 전문가 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해외 사례론 미국의 카

네기 멜런 대학교(Carnegie Mellon University, 이하 멜런대)는 언어 기술 연구소(Language Technologies Institute)를 중심으로 언어학과 컴퓨터 과학을 일찍부터 융합해왔다. 멜런대는 언어를 인문학 영역으로만 한정하기보다 분석 가능한 데이터이자 정교한 기술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 학교도 어문계열 학생들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연계전공이나 언어 데이터 과학과 같은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I 활용 지역학 자료 분석 또는 파이썬(Python)을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등 전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실습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기술을 자신의 핵심 역량으로 흡수하도록 도와야 한다. 나아가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코딩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을 함께 교육해나가며 컴퓨테이셔널 링quist(Computational Linguist)** 혹은 랭귀지 엔지니어(Language Engineer)***를 양성하는 학제 간 융합 교육 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 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학생들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학교 내부 차원에서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화답하고 있다. 미네르바대학 교양교육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데이터 및 AI 관련 역량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수 역량을 인지하고 교양 교육 개편 과정에서 관련 교과목을 확대·개편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센터의 계획에 따르면 기존 소프트웨어기초영역에 AI와 데이터 관련 과목을 신설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전공 기초 과목을 교양 학점으로 인정하는 코드셰어(CodeShare)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이는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의 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모든 학생이 디지털 소양을 갖추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 어문계열 교육의 목표는 기술과 인문을 아우르는 융합인재 양성이 돼야 한다. 즉 교양 교육을 통해 얻은 기술적 토대 위에 각자의 전공 언어와 문화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데이터 분석△디지털 마케팅(Digital Marketing)△IT 기획 등 자신의 관심 분야 기술을 접목할 때 비로소 AI는 대체할 수 없는 독창적인 경쟁력이 완성된다. 우리학교가 AI 시대에 번역의 의미를 단순 언어 변환에서 문화와 기술을 잇는 가치 창출로 재정의하고 글로벌 리더의 위상을 지켜나가길 기대한다.

*포스트에디팅 (Post-editing): 기계 번역 결과물을 사람이 교정·수정하여 품질을 높이는 과정

**컴퓨테이셔널 링quist (Computational Linguist): 언어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어처리(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전문가

***랭귀지 엔지니어 (Language Engineer): 언어 데이터를 다루고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에서 언어 기능을 구현·개선하는 엔지니어

지하복합시설

소음·흡연·안전 문제에 학생들 한숨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지하복합시설이 △소음△안전△흡연이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하복합시설은 학생 자치 활동의 핵심 공간이지만 외대학보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이용 학생 95%가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할 만큼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복합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지하복합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학교 설캠 지하복합시설은 학생 자치 활동의 중심지이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외대학보에서 지난달 22일에서부터 25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복합시설 이용 학생의 95%가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외대학보 취재 결과 학생들이 겪는 불편은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 측은 정기 회의를 통해 파악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금연구역 내 흡연△동아리 간 소음 문제△시설 노후를 꼽았다.

먼저 방음 시설 미비로 인한 동아리 간 소음 문제가 지적됐다. 지하복합시설 지하 1층과 2층엔 동연 공연분과 소속 중앙동아리 14개 중 6개가 위치해 있으며 △단과대 소속 동아리△안무실△총학생회 산하 특기구 패실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 단체 대부분은 활동 특성상 악기 연주나 음악 재생이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선 지하복합시설 이용 학생의 95.2%가 다른 동아리방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활동에 방해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연 분과 동아리방의 경우 방음 시설이 없어 악기 소리나 노랫소리가 옆방에 그대로 전달돼 동아리 활동의 질을 저하하고 학생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학교 설캠 중앙동아리인 노래나래 소속 박민혁(일본·일언문 24) 씨는 “큰 대화 소리조차 여과 없이 들려 연습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공연 관련 단체들이 모여있는데 방음이 잘 안돼 소음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하복합시설 지하 2층엔 △노래나래△새물결△서양어대학 동아리실△에프에이(F.A)△오디오피ل(Audiophil)△외대합창단△외인부대(Wayne Boodae)△크림슨레드(Crimson Red)△풍물패 9개의 단체가 서로 벽을 맞대고 있다. 오한슬(아시아·아랍 20) 에프에이 회장은 “옆 방의 연주 소리 때문에 동아리방 내에서 부원끼리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연 분과 동아리 소속 김어진(일본·용일지 20) 씨 역시 해당 문제에 대해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예민해질 때가 많아 방음벽 설치 등 실질적인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연은 이에 대해 “매년 꾸준히 민원이 접수되는 문제”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수개월간 논의가 진행되었고 수차례 학교 측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휴게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흡연 문제로 인해 많은 학생이 고통을 호소했다. 앞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복합시설 이용 학생의 70%가 “지하복합시설 내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하복합시설 계단 옆 벤치는 사실상 흡연 구역이 된 지 오래다. 문마다 부착된 ‘금연구역’ 안내문이 무색하게 자욱한 담배 연기로 인해 비흡연자 학생들은 동아리방을 오갈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지하복합시설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A 씨는 “동아리방에 가려면 매번 담배 연기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며 “금연구역이란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연 분과 동아리 소속 B 씨 역시 “매번 지나가야만 하는 공간인데 담배 냄새가 불편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반면 해당 구역에서 자주 흡연을 한다는 C 씨는 “많은 사람이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고 재떨이도 놓여있기에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하복합시설 야외 휴게공간 중앙에는 재떨이 역할을 하는 강통이 놓여 있어 하루에도 많은 학생들이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C 씨는 “동아리방이

지하에 자리 잡고 있고 근처에 마땅한 흡연 구역이 없다”고 주변 흡연 공간의 부재를 지적했다.

지하복합시설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복도에 쌓인 동아리 적재물과 노후화된 시설이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빠격거리거나 흔들리는 계단 및 난간으로 인한 불안감△어두운 조명으로 인한 불편△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 시 대피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 순으로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연에 따르면 해당 계단은 부식이 심하고 일부 돌판은 고정이가 풀려 발을 디디면 들쭉일 정도다. 오예령(AI·LAI 25) 씨는 “안전장치라곤 난간뿐인데 계단이 덜컹거리 불안하다”며 “평상시에도 문제지만 비 오는 날엔 특히 더 미끄러워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박승현(중국·중언문 23) 씨는 “악기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불안하다”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연은 이에 대해 “무거운 장비를 옮길 때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고 출입문도 비좁아 통행에 큰 불편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엘리베이터의 부재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지하복합시설과 지상을 잇는 직결 엘리베이터가 없어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은 역사기념관을 통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한다. 동연 측은 “철제 계단의 즉각적인 보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직결 엘리베이터 설치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학생들의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방음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특히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공연 분과 동아리방에 우선해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점차 전체 동아리방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김선규 설캠 시설관리팀 팀장(이하 김 팀장)은 예산과 절차의 문제를 언급했다. 김 팀장은 “방음 부스나 방음재 추가 설치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방음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소요 제기△재원 마련△타당성 검토 등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행정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흡음재를 공동으로 부착해 즉각적인 갈등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식적으로 학교에 시설 개선을 요구하고 타당성 검토를 요청하는 등 학교 측이 언급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동연은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지하복합시설을 포함한 자치공간의 사용 불편 사항에 대한 설문문을 마쳤고 학교 측에 시설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연구역 안내문 재정비나 계도 활동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를 비롯해 건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등에서 밀폐형 흡연 부스를 설치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학교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 팀장은 “공간 부족 문제로 흡연 부스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



속에 대해서도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니면 현장 적발 시 구두 지적 외에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렵다”며 단속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현재로선 해당 구역에 금연구역 포스터를 다시 부

착하고 재떨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대체 흡연 구역 지정은 총학생회 등 학생 자치 단체가 주도해 위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단순히 학교 측의 조치만을 기다리기 보단 총학생회가 금연 캠페인(Campaign)을 주도하거나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흡연 구역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등 학생 사회의 자발적인 노력도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하캠퍼스엔 △공용 공간△동연 소속 중앙동아리 △일부 단과대학 소속 동아리방△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실 △학생회실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처럼 이용 주체가 다양하기에 동연 측은 “학생 사회 전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학교와 학생 자치 기구의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 안전과 직결된 환경 개선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복도 적재물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공간 정리 캠페인과 학교 측의 주기적인 안전 점검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빠격거리리는 계단△어두운 조명△흔들리는 난간 등 노후화된 시설은 즉각적인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한 노후화 시설의 파악 및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김 팀장은 “지하복합시설 건물의 경우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돼 관련 법령에 따라 3년마다 전문업체에서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계단 문제와 관련해선 “시설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와 학생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다. 일방적인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해결책이 나올 때 비로소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통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보인다. 동연 측은 “학교 측과 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에 동연은 최근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교에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지하복합시설이 모든 학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동의 중심지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윤고는 기자 10goeun@hufs.ac.kr

LX판토스, 세상에 없던 물류를 생각하다

Global Logistics Creator! LX Pantos

국내 물류기업 중 가장 많은 360여 개 글로벌 네트워크와
세계 6위 수준의 해상화물 취급 물동량, 그리고 항공수출 물동량 국내 1위의 LX판토스!
LX판토스는 국내 업계 최초 글로벌 Visibility 관제 시스템과 e커머스 및 항공 물류 플랫폼을 통해
물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LX Pantos Global Networks | ASIA : China, HK, Japan, Indonesia, Singapore, Thailand, Vietnam, India, Philippines, Malaysia, Cambodia, Australia EUROPE : Netherlands, UK, Poland, France, Spain, Germany, Turkey, Sweden, Hungary AMERICA : USA, Colombia, Mexico, Brazil, Panama, Chile, Argentina CIS : Russia, Kazakhstan, Uzbekistan MIDDLE EAST : UAE, Saudi Arabia AFRICA : Egypt, South Africa



도쿄에서 청춘의 한 장을 기록하다

이번 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우리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아오야마가쿠인 대학(青山学院大学) 경영학부에서 수학했다. 스스로를 외딴 나라에 던져 놓고 수많은 문제를 홀로 헤쳐 나가는 경험을 하고 싶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교환 국가로 일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내 전공어가 일본어란 점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거리도 가깝고 부담 없이 홀로 해외살이를 해볼 수 있는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심장 부인 도쿄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내 청춘의 한 장에 기록하고 싶다는 욕심 또한 있었다.

교환학생 기간엔 △동아리△수업△여행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만약 일본 대학에서 유학하게 된다면 많은 동아리에 가입하길 추천한다. 일본에서 4월은 신학기라 동아리들이

다행히 학생일 경우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자신의 거주지와 학교 사이 구간의 정기권을 이용해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정기권 발급은 일본 유학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유학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깊은 친구 관계를 쌓을 수

기를 공유할 수 있어 외국인 친구들과도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 처음엔 외국인 친구들과의 우정이 깊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이는 선부른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됐다. 이는 유학 동안에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아쉬웠던 점은 일본에서의 시간을 흐르는 대로 보냈다는 것이다. 출국하기 전엔 이런 저런 계획을 많이 세웠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에 가보니 적응의 높에 빠져 처음 계획했던 것들을 다 이뤄내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 다시 한번 유학을 가게 된다면 내가 이뤄낸 것에 대한 중간 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하며 더 많은 부분을 성취하고 싶다.



있다는 점이였다. 일본인 친구뿐 아니라 △대만△중국△태국△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유학 온 친구들이 많았다. 이들과는 일본어 혹은 영어로 소통하니 초반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자유롭게 전할 수 없어 답답하기도 했다. 여태까진 일본어를 회화보단 문어체 위주로 학습했다 보니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구어체의 일본어를 이번에 처음 접한 셈이였다. 특히 원어민들이 구사하는 일본어는 평상시 접했던 일본 드라마와 같은 매체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였다. 이런 언어의 벽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지만 놀랍게도 언어를 자주 사용하다 보니 실력이 빨리 늘었다. 문어체에서 다루는 어휘의 범위는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구어체는 비교적 좁은 편이다. 친구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바탕으로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파악하고 계속 적응해 보려 애썼다.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다 보니 빈번히 사용하는 말이 생겼고 일본어로 자유롭게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엔 외국인 친구들과 일본어로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언어의 벽을 넘으니 다양한 고민과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



처음으로 외국에서 홀로 생활하며 느낀 점은 생각보다 해외 생활이 나와 잘 맞다는 것이다. 외롭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국경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각 동아리 문화를 잠시 체험할 수 있는 신칸(新歓) 및 사세키(サセキ) 등의 활동을 통해 자신과 맞는 동아리를 탐색할 수 있다. 그 후 3~4개의 동아리에 가입해 1년 동안 활동한 후 최종적으로 한두 개를 선택하는 게 보통의 방식이다. 따라서 초반엔 꼭 하나의 동아리에만 가입하기보다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동아리의 개수를 정한 후 흥미로워 보이는 곳에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일본 생활과 관련해서 교통비를 언급하고 싶다. 일본은 교통비가 굉장히 비싼 국가다.

조수빈(일본 · 일언문 21)



인도네시아

<발리의 춤>

- 발리의 무희들, 계급의 벽을 넘다 -



‘발리의 춤’은 오카 루스미니(Oka Rusmini) 작가가 자전적 경험에서 얻은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루스미니는 카스트(Caste) 계급의 최상층인 브라만(Brahmin) 계층이었으나 결혼을 하며 브라만 계층으로서의 사회적 신분을 포기한다. 인도네시아 카스트 제도는 상위 계층 여성과 하위 계층 남성이 결혼하는 것을 금기시했기에 이는 큰 결정이었다. 반면 사회적 신분 상승을 위한 하위 계층 여성과 상위 계층 남성의 결혼은 관습적으로 허용됐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이 소설은

모녀 두 세대 간 엇갈린 선택을 비추며 가부장적 카스트 제도를 문학적으로 비판한다.

스카르(Sekar)는 카스트 제도 내 가장 낮은 계급인 수드라(Shudra) 출신인 동시에 평생을 반역자 아버지로 인해 무시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사회적 신분을 높이기 위해 맹목적으로 브라만 계층의 남성과 혼인하려 한다. 이후 신분 상승에 성공한 그녀는 끄낭아(Kenanga)란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뿐 아니라 귀족 생활 방식을 모조리 새로 배워야 했다. 그러나 그녀는 신분이 높아졌음에도 카스트 제도 내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시댁에선 여전히 수드라 계급 출신이란 이유로 구박과 핍박을 받아야 했다. 반면 처가에선 관계를 끊어야 한단 이유로 어머니의 장례식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 그녀가 애지중지하며 키운 딸 플라가(Telaga)는 어머니와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 플라가는 부유한 브라만 계층이자 발리의 아름다움을 한몸에 담은 뛰어난 무희였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특혜를 포기하고 최하위 계층 남성과 결혼한다. 플라가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확신으로 수드라 계층의 삶을 익히려 노력했다. 끝내 플라가는 ‘빠디왕이’라는 의식을 통해 수드라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 소설이 “발리의 춤”인 이유는 스카르와 플라가가 발리 최고의 무희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전통 춤에 대한 묘사는 우아함을 뛰어넘어 예술의 경지에 다다른 것처럼 보인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 춤을 육체적으로만 좇는 시선은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낸다. 또한 이 소설은 카스트 제도와 성차별을 예술의 영역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스카르와 플라가가 결혼 전 자유롭게 춤추는 모습과 결혼 후 새롭게 소속된 계층에 적응하기 위한 고된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결혼 후 모녀 모두 어떤 선택을 하든 원망과 차별은 카스트 제도 내 남성이 아닌 여성만이 받았다. 따라서 “발리의 춤”은 이국적인 배경 속 여성에게 적용되는 족쇄를 드러낸다. 이는 우리에게 발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세계 전반의 성차별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를 묻는다.

송주원 기자 11juwon@hufs.ac.kr

국제지역 전문가 양성의 요람 국제지역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모집

1. 국제지역대학원 모집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모집 전형 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9. 30(화) ~ 10. 14(화)	원서작성: 2025. 11. 11(화) ~ 11. 20(목)
면접 전형일	2025. 11. 1.(토)	2025. 12. 6.(토)
입학설명회	2025. 11. 7(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온라인 입학설명회 세부 안내는 추후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단,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특징

가. 다양한 장학금 제도
나. 유엔평화대학 이종학에 프로그램 운영(국제학과, 한국학과, 중남미학과, 유럽연합학과)
다. 3+1제도 시행(선발자에 한하여 재학 중 1학기는 해외에서 학점 취득)
라. 폭넓은 다양한 지역학, 국제학 과목 개설
마. 졸업 후 많은 동문들이 국제기구, 공공기관 국제협력실, 대사관, 국제 연구기관 등에서 국제지역 전문가로 활약 중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2.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모집

◎ 모집: 석사학위과정(4학기)

학 과 (전 공)	학 위
국제지역전략학과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국제지역학석사, 경제학석사

◎ 모집일정

구 분	1차 모집	2차 모집
온라인 원서작성	원서작성: 2025. 9. 30(화) ~ 10. 14(화)	원서작성: 2025. 11. 11(화) ~ 11. 20(목)
면접 전형일	2025. 11. 1.(토)	2025. 12. 6.(토)
입학설명회	2025. 11. 7(금) 예정 (Webex를 통한 온라인 입학설명회) 변동 가능	

• 온라인 접수사이트 : <http://www.uwayapply.com>

◎ 특징

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출신 교수진 초빙
나. KOTRA의 통상전략 및 지역통상 현안 분석을 기반으로 국제지역대학원의 고유가치인 지역학 접목
다. 통상환경 + 실무이론 + 지역별 심화 연구를 아우르는 실무 통상 전략기 양성을 목표로(커리큘럼 방향은 추후 변경 가능)
라. 졸업 시 학위기와 함께, 별도로 KOTRA 사장 영의 KOTRA-HUFS 통상 협동 특별과정 수료증 수여
마. KOTRA 현지 무역관 연계 단기 현장학습 추진
바. GBC(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턴트, 민간 1급) 자격증 연계

◎ 문의처: 02)2173-2448, 2449, 2434

Email: hufsgsias@hufs.ac.kr

- 국제지역대학원 홈페이지: <https://gsias.hufs.ac.kr>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의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5.09.18(목) ~ 10.02(목)	2025.11.14(금) ~ 11.28(금)
고사장 발표	2025.10.15(수) 15:00	2025.12.10(수) 15:00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예정	2025.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5.10.31(금) 15:00	2025.12.26(금)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2026.01.02(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총원상향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나. Department of ELT Materials & Technology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일은 추후공지)

7. 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우수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다. 학적 교사 장학금(매학기 지급)

라. 학점 인정 혜택 (한국외대TESOL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자격증 취득자)

마. TESOL연구과정(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북수학위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 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California State University, Selkirk College)

아. 추가학점이수트랙신설 (논문 · 졸업연구보고서 대체, 2021년 신입생부터 적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의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학처

TEL.02-2173-3521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의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성인 청년인데도 여전히 부모 품에… 캥거루족의 현실과 남은 과제는

△개인△경제△사회적 문제란 삼중고로 청년들의 독립이 점점 요원해지며 일명 ‘캥거루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엔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기대 독립하지 못한 청년을 비판적으로 일컫는 말이었지만 오늘날엔 경제적 자립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동거하는 모든 청년을 통칭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됐다. 청년 독립 문제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구조적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캥거루족의 현황△캥거루족 확산의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캥거루족의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52.5%로 절반을 넘었다. 조선경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탁하는 20대의 비율은 81%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평균인 50%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36개국 중 1위였다.

이는 청년들이 대학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구직에 실패해 부모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직에 성공해도 여전히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 또한 적지 않다. 독립을 꿈꾸기보다 부모 품에 머무르는 현실이 일반화되고 있다. 독립한 후에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가는 ‘리터루(Returnro)족’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2년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 동거 청년의 67.7%가 독립 계획이 없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건 부족(56.6%)이었다. 이러한 신조어의 사용은 방송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예능 프로그램 ‘다 컸는데 안 나가요’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연예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으로 캥거루족이란 용어를 직접 사용했다. 이처럼 캥거루족은 용어 지칭 범위의 확장과 더불어 그 사용 빈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해외에서도 캥거루족과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일본에선 부모에게 얹혀살며 생활비를 받아 쓰는 독신 자녀들을 패러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이라 지칭하고 있다. 미국에선 독립하지 않은 청년들을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에 낀 세대란 의미로 트위스터(Twister)라고 지칭한다. 그 외에도 오호영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각국의 비독립 청년들은 △독일 네스트호커(Nesthocker)△이탈리아 맘모네(Mammone)△영국 키퍼스(Kippers)△캐나다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문제다.

◆캥거루족 확산의 원인

청년인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캥거루족으로 남는 이유론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원인이 지목된다. 특히 높은 주거비와 물가로 인해 야기된 경제적 부담은 청

년 독립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벽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의 청년 1인 가구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천만 원 기준 77만 원으로 갓 취업한 청년의 초봉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물가 또한 마찬가지로 청년의 독립 부담을 심화한다. 실제로 지난 6월 우리나라 음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38개국 중 2위였다. 이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부족한 여건에서의 독립 시도는 오히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빈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불안정한 고용 현실도 캥거루족 확산의 원인이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OECD 평균보다 높다. 취업하더라도 단기 계약직이나 저임금 직종이 주를 이룬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개월간 연속적인 하락세였으며 국가통계포털에 기재된 전국 청년고용률은 45.7%로 절반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원인들이 소득 불안정으로 이어지며 독립 후 생계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 자립 시 당면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부모와 함께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지난 2022년 서울연구원의 ‘서울청년 패널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거주 청년의 자산 빈곤율은 55.6%에 달했으며 청년 1인 가구의 경우엔 62.7%로 7.1%p 높게 집계됐다. 특히 저소득 가구의 경우 해당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해 발표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의 생애과정 변화에 따른 빈곤 위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수준이 청년 자녀의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즉 저소득 가구 자녀일수록 독립 시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 이들의 독립이 더욱 어려우며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의 노후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 문제가 해소되더라도 정서적 이유로 독립을 주저하는 청년들 역시 적지 않다. 26세의 A 씨는 왜 독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독립해 봤자 고생이고 혼자 생활할 자신이 없다”며 “아직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는 캥거루족의 증가가 단순히 경제력 문제만이 아닌 정서적 독립 준비 부족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의 독립심 부족은 사회적 활력의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강현선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는 ‘성인가자녀의 부모의 돈 거구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청년의 심리 및 정서적 비독립으로 현실에 대한 안주와 부모에 대한 의존은 청년들의 성인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방해하며 부모 의존 성향이 강화돼 사회 진출이 곤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모의 과보호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일부 가정에선 경제 및 정서적 독립 준비가 된 성인 자녀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독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려드는 일명 ‘헬리콥터 부모(Helicopter Parent)’들은 헬리콥터처럼 자녀의 머리 위를 맴돌며 자녀의 자기 주도적인 독립 의지와 정신적 성장의 기회를 차단시킬 수 있다. 임영주 임영주부모교육연구소 박사는 경기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성세대의 ‘청년들은 부모 도움 없이는 안 돼’란 가치관과 정서적 독립을 두려워하는 현 청년세대의 가치관이 맞물려 캥거루족 현상이 발생하고 자립 연령이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청년의 안정적인 경제 및 정서적 독립을 위해선 △개인△사회△제도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전용 기숙사 확대 등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나가야 한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같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또는 청년월세지원 정책처럼 임차보증금과 월세 보조를 결합한 프로그램 또한 즉각적인 부담 경감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선택지를 늘리는 방안은 많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자금 지원으로 부담을 낮추는 전세 자금대출 지원과 함께 금융과 임대 계약 교육을 병행하는 단계적 자립 로드맵(Road Map)을 설계해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형 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 상황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를 안내하는 청년 자산 통합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해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소득△자산 수준△주거 형태△취업 상태와 같은 개인의 상황을 입력해 맞춤형 패키지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해 주는 것이다.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제도 또한 참고할 만하다. 해당 제도는 여러 복지 및 지원 제도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회 보장 지급 체계를 구축했다.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역시 핵심 과제다. 단기 아르바이트 위주의 노동 구조를 개선하고 청년이 실무 경험을 쌓아 장기적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

고 실질적인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훈련과 현장형 교육을 연계해 실무인력 양성을 촉진한다면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안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유스 갰런티(Youth Guarantee)처럼 △교육△견습 기회△일자리 등을 보장해 청년 취업률 개선에 기여했던 청년지원제도를 참고해 신속하고 질 높은 일자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청년 스스로도 자립 의지를 다지고 생활 역량을 길러야 한다. 민현주 교수와 임영주 박사는 경기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소년기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으로 삶을 꾸리는 연습이 필요하고 경제 및 정서적 안락함에 안주하면 성인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느껴야 한다”며 청소년기 자립심 형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자발적 금융 및 자산 형성 교육을 토대로 한 독립심 증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코넬대학교(Cornell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 지식과 재정 문해력 교육은 개인의 △부채 관리△저축 및 투자의 참여도△지출 습관과 재정 건전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또한 영국의 경우 Lifetime ISA* 제도를 운영하면서 청년층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자립심 개발을 이끌고 있다. 이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단 점에서 좋은 참고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 독립은 부모 세대의 역할과도 직결되기에 부모는 자녀를 끼고 사는 습관에서 벗어나 자립을 격려하는 동시에 안정적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성인 자녀의 자립을 위해 세대 간의 일방적 책임 공방보다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족 단위 자립 지원과 교육 또는 공동 재테크 프로그램을 도입해 상호 자립을 지향할 수 있다.

결국 캥거루족 문제는 개인과 사회의 종합적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캥거루족 문제가 개인의 나태를 넘어 사회구조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 가야 한다.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독립과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Lifetime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영국 정부가 2017년 도입한 장기 저축 제도로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년 일정 금액을 저축 및 투자하면 정부가 25%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백채린 기자 11chaeli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6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6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9.12(금) ~ 09.26(금)	2025.11.14(금) ~ 11.28(금)
고사장 발표	10.15(수) 15:00	12.10(수) 15:00
면접전형	10.18(토) 10:00 예정	12.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10.30(목) 15:00	12.18(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11.03(월) ~ 11.07(금)	12.22(월) ~ 12.26(금)

■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다.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학과

3. 지원자격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 **지원자의 모국어가 외국어인** 경우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교육과 중등교육 및 대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지원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가. 공통제출 서류
-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 4) 재학 전학원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 5) 학력조회증서 1부(원본)
 -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 8) 재학증명서(외국인 학생만 해당-2개월라 이상)
 -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 이포스터유 인증 또는 국내 해당국가 대사관의 공증서 제출 필요
 - 다. 선택 제출서류
 - 1) 자격증 : 초·중·고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부여
 - 2) TOPiK(한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면접 고사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8. 특전
- 가. 성적 우수자 3학기 졸업 가능(별도의 조기졸업심사 진행)
 - 나. 3가지 졸업 트랙 운영
 - * 논문(24학점 이수), 연구보고서(28학점 이수), 추가학점(32학점 이수)
 - 다. 장학금 : 성적우수/우수외국인/동문/근로장학금 등 장학 혜택
 -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외학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커뮤니케이션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년 전기 신입생 모집

◆전형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 9. 18.(목) ~ 9. 24.(수) 16:00	2025. 11. 6.(목) ~ 11. 12.(수) 16:00
면접전형	2025. 11. 1.(토) 10:00	2025. 12. 6.(토) 10:00

※ 접수방법 : ①온라인 원서접수→②입학원서 출력본 및 기타 지원서류 제출(방문 또는 우편)→③지원자 유의사항 및 면접 장소 확인→④구술(면접)시험 응시→⑤합격자 확인

※ 면접전형 일시는 학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자격

① 특별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예정자로 학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5.0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다.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로 석사학위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 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4.0(5.0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개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② 일반전형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다. 학사과정의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2) 박사학위과정

가. 국내·외 대학원(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2026년 2월(일본 소재 대학은 3월 졸업자) 취득 예정자

나. 석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장의 인정을 받은 자

다.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전공)와 동일개열에 한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모집과정 및 학과 /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 : gra.hufs.ac.kr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우편제출

02450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대학원 1층 102호)

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입시문의

02)2173-2397



무분별한 방생, 생태계를 뒤흔들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외래종으로 인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른바 '생태계 교란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생물 다양성 감소 및 경제적 손실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반려 외래

종의 무분별한 방생에서 비롯된 결과다. 특히 이번 여름 생태계 교란종에 의한 피해가 다수 속출해 더욱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생태계 교란종 현황 및 원인△생태계 교란종 문제△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보자.

◆생태계 교란종 현황 및 원인

생태계 교란종은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국내에서 번식해 기존 생태계의 균형을 해치는 외래종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 교란종은 총 19종으로 이는 국내 자연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돼 국가에서 지정한 생물이다. 우리나라 국립생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통관 단계에서 기록된 외래 생물 유입종은 3,460종에서 6,840종으로 늘어났다. 이 중 대다수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외래 생물로 이들의 국내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생태계 교란종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외에서 유입된 동물을 가정에서 기르다 관리 부담으로 인해 무책임하게 방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붉은귀거북과 늑대거북은 미국 혹은 캐나다의 습지에서 불법적으로 우리나라로 유입돼 가정에서 반려동물로 키워지곤 한다. 성체가 됐을 때 더 이상 가정에서 키울 수 없다 판단되면 사람들이 이들을 주변 연못이나 호수에 유기 및 방생해 해당 종이 생태계 전반으로 퍼진다. 실제로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공원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늑대거북이 발견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즉 생태계 교란종의 증가는 국가 간 동물 거래의 증가와 반려동물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회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며 발생한 결과다.

◆생태계 교란종 문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생태계가 파괴되고 다양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태계 교란종은 천적이 거의 없어 토종 동식물을 쉽게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토착종과 △서식지△식량△햇빛과 같은 자원을 두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기존의 토착종을 멸종의 위기로 몰아가게 된다. 일례로 붉은귀거북은 △물고기△수생곤충△양서류 등 거의 모든 생물을 먹는 잡식성으로 토종어류와 수생 생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키우다 방생되는 붉은귀거북의 경우 우리나라 토종 거북인 남생이와의 서식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남생이의 개체 수가 급감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KBS 뉴스에 따르면 지난 8월 부산 시민공원 연못에서 수습 마

리의 붉은귀거북이 발견된 바 있다. 이처럼 생태계 교란 문제는 단순히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다음으로 생태계 교란종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농업 및 어업 손실액이 연간 수 천억 원을 넘기며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어획량이 저하되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생태계 교란종 중 하나인 미국흰불나방 유충은 주변의 모든 잎을 갉아 먹어 농작물 수확량을 감소시켜 농가의 소득을 악화시킨다. 중도일보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산시 수석동에 거주하는 김 씨는 “집 앞 벼나무 및 농가가 며칠 사이 다 갉아 먹혀 초토화됐다”며 교란종으로 인한 생계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릴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일상 속 불편함을 전했다. 또한 어업 피해 측면에선 생태계 교란종인 큰입배스(Largemouth bass)가 토종어류의 치어와 성어를 가리지 않고 포식해 토착 어종 개체 수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실제로 큰입배스는 먹이 경쟁과 서식지 점유를 통해 어종 다양성을 떨어뜨리며 이로 인해 일부 내수면에선 토종 △붕어△잉어△참붕어 등의 개체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로 직결돼 어업 소득이 줄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인한 관광업 손실도 막대하다. 지난 6월 인천 계양산과 서울 은평구 일대를 중심으로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가 대량 발생하며 지역 관광지과 상업시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등산 명소인 계양산 산책로와 정상 전망대에 벌레떼가 몰려들어 △계단△난간△휴게시설을 덮고 있어 등산객들과 관광객들의 야외 활동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불쾌함을 느낀 방문객들의 인증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며 관광지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충청남도 천안의 병천천에선 생태계 교란종인 미국가재가 반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미국가재는 토종 가재를 비롯해 수생 곤충과 어린 물고기 등을 포식해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녹조 발생 가능성까지 높인다. 이러한 생태 변화는 배나 낚시 및 수자원 환경 체험 관광과 같은 지역 관광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야 할 방향

생태계 교란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문제인 만큼 국내에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활동 역시 비교적 활발히 진행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생태계 교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6월 강원도 양양군은 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사업을 추진했다. 양양군 이외에도 지난해를 우리나라의 여러 지자체는 하천 변과 마을 도로변 등 주요 서식지를 중심으로 교란 생물 집중 제거 작업을 진행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며 국가 간 교역이 급증함에 따라 생태계 교란 문제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제적인 반려동물 무역과 상품 유통이 활성화되며 외래종의 유입이 쉬워진 만큼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과 기업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하다. 일례로 지난 6월 동아오츠카(주)는 안양시와 협업체 안양천 일대에서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진행했다. 홍성호 동아오츠카(주) 상무는 서울타임즈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안양시와 임직원들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태계 교란 어종 포획’ 행사를 진행했다. 블루길(Blue gill) 및 큰입배스 등의 외래 어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통해 6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지정 구역에서 포획 활동을 수행했다. 캠페인(Campaign)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생태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면 생태계 회복과 해결 방안 마련에 있어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소연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 활동으로 시민의 환경 의식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공원 생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반려 생물 방생 문제 역시 절대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다. 생태계 교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가정집에서의 방생인 만큼 이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우선 일반인들은 어떤 생물이 생태계 교란종인지 잘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외대학보에서 우리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

답자의 약 90%가 어떤 생물이 생태계 교란종 인지 잘 모르거나 개략적으로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일례로 관광지나 카페에서 관상용으로 흔히 보는 ‘핑크몰리(Pink muhly)’는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한 외래 식물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성 등급이나 위해 요소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자연 경관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무심코 심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적으로 약 10만여 제곱미터의 핑크몰리가 공원이나 도로변 등에 퍼져 있음에도 지자체에선 방문객 유치를 위해 군락지를 조성하거나 식재를 지속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 송옥주 국립생태원 위원장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태 교란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인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방 차원에서의 제도적 정비 역시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래종이나 생태계 교란종을 방생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가벼운 처벌이 아니지만 사실상 방생자를 발견하고 처벌하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기에 여전히 가정에서의 방생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식물에 대한 규율 및 보호가 선진화된 호주의 경우 자연 및 종 보호 위반에 대해 우리나라와 달리 고액의 과태료뿐 아니라 강도 높은 징역을 규정한다. 특히 심각한 위반의 경우 최대 8억 원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규정할 정도로 엄격한 처벌을 집행한다. 현재 생태계 외래종 즉 생태계 교란종이 야기하는 문제는 일견 단편적으로 보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속적인 관심과 민관 협동을 통한 예방적 조치로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확실한 실천이 필요한 때다.

임재언 기자 11jaeeon@hufs.ac.kr

www.사사한줄토막.com

정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빠진 정부조직 개편안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를 마친 뒤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지금 갖고 있는 기능 중에 국내 금융 관련한 권한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기로 했으나 원위치 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러운 개편안 발표 이후 내부 갈등이 증폭되는 추세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양 기관은 우선 한숨 돌리게

된 모양새이다. 이번 결정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이뤄진 결정이란 비판 속에서 나타난 지속적인 정쟁화와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전히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신설과 같이 굵직한 조직 개편에 대한 비판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분쟁 없이 최종 개편안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을지 향방이 주목된다.

사회 KT 소액결제 피해 사건의 배후에 중국 조직 개입 정황 드러나

지난 8월 26일 최초 피해사례 확인 이후 크게 논란이 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경찰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해외에서 들어온 불법 펌토셀로 가짜 기지국 신호를 뿌려 인증문자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은 약 2억 4천만 원이다.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특정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40대로, 차량에 펌토셀을 싣고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을 돌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사건 관련 펌토셀 ID 4개를 내부에서 확인했

고 개인정보 유출 추정 대상 2만여 명에 대해 위약금 면제 검토와 전수분석을 약속했다. 지난달 24일에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관리 부실을 인정·사과했고 ARS 외 SMS 등 전체 인증 기반 결제 피해 재점검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청문회에서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의 법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T는 “모든 인증 방식의 소액결제 사례를 다시 분석해 피해 범위를 재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MBK 파트너스, 기업 회생 중인 홀플러스에 2천억 원 추가 투입 결정

MBK 파트너스(이하 MBK)가 지난달 24일 사과문을 통해 대형마트 홀플러스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것을 발표했다. MBK는 현재 홀플러스를 소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이다. 해당 결정은 지난 2015년 MBK의 홀플러스 인수 이후 전반적인 대형마트 업체들의 불황으로 인해 발생한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MBK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대규모 자금 지원에 대해 “홀플러스 인수매각 과정에서 인수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이전의

지원액을 포함한 총 5천억 원의 지원은 기업 회생이나 워크아웃 사례에서 대주주가 기업 정상화를 위해 투입한 자금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BK는 해당 사과문에서 “홀플러스의 2만명 임직원과 8만명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여전히 대형마트 업종이 불경기인 만큼 이번 조치가 현재의 경영난 타개를 넘어 인수에 유의미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제 이재명 대통령, UN 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하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유엔(United Nations, 이하 UN)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에선 △교류(Exchange)△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어 앞글자를 딴 E.N.D 이니셔티브(initiative)가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해당 연설에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과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

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다”며 대화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지난달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 국가이자 완전한 상국이며 하나가 없어지지 않고서는 통일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비춰볼 때 이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우리나라 언론의 양극화 심화... 갈등 키우는 보도 행태

유튜브(Youtube)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 등에서 누구나 쉽게 제작하고 대량으로 쏟아낼 수 있는 ‘양산형 콘텐츠’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들 매체는 조화수와 자극적 보도에 치중하며 우리나라 언론을 편향과 깊은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동일 사건이 다른 관점으로 보도되며 국민은 혼란을 겪고 있

고 사회 전반의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 역시 감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뉴미디어(New Media)△방송△신문의 사례를 통해 △언론의 분열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공정성 논란과 저널리즘의 무너진 기준△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언론의 분열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몇 년간 우리나라 언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양분됐다. 같은 사안이 매체마다 전혀 다르게 보도되며 시민들은 각자 다른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7.3%가 “언론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대의 절반 이상은 “특정 언론을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 불신이 특정 세대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대학보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특정 정치 성향에 따라 언론 보도가 편향적이라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자주 있다”고 답했고 언론의 양극화 현상이 본인의 뉴스 선택이나 정치적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 전원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언론사마다 상반된 보도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 역시 75%에 달했으며 이러한 차이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응답도 75%로 나타났다.

언론의 정치적 편향은 보도의 다양성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철학자 하버마스(Habermas)에 따르면 공론장은 시민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영방송 MBC의 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기자가 개인적 평가를 곁들인 발언을 내보낸 사건은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인 ‘사실과 의견의 분리’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문제는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지난 2023년 미국의 Pew Research Center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가운데 보수 성향 유권자 80%는 Fox News를 진보 성향 유권자 70%는 CNN이나 MSNBC를 주요 뉴스 출처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보수층은 △동아일보△조선일보△종합편성채널 등의 언론을 진보층은 MBC와 JTBC를 시청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언론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시민들은 공통의 사실 기반

을 공유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민주주의적 토론의 장은 점점 협소해진다.

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언론이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언론 신뢰도의 하락은 단순히 언론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갈등 구조를 고착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기 위해선 언론의 자기 혁신과 시민의 비판적 뉴스 소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 논란과 저널리즘의 무너진 기준

언론의 공정성 논란에선 공영방송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MBC 뉴스데스크 앵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개선장군처럼 웃으며 풀려났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이 발언은 보도와 논평이 뒤섞여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비판받았다. 지난해엔 기자의 지인과 인턴을 일반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에 등장시켰다 뒤늦게 이들이 기자와 개인적 관계가 있던 사실이 드러나 사과하는 사건도 있었다. 이는 공영방송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들이다.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일보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취재에서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나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기자 개인의 관점이나 정치적 시각이 보도에 개입하며 뉴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청자들이 언론을 ‘정치 세력의 도구’로 인식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디지털 네이티브(Native) 세대는 유튜브와 SNS 등 대안 미디어를 주요 뉴스 출처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사실 검증 체계가 취약하고 특정 성향만 강화하는 필터 버블(Filter Bubble)* 문제가 심각해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다. 앞서 언급한 외대학보 설문조사에서 ‘한국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도’ 평균은 5점 척도에서 2.5점에 그쳤다. 가장 신뢰하

는 매체 유형은 온라인 매체(37.5%)로 공영방송(25%)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통 언론이 신뢰 기반을 잃어가며 디지털 플랫폼이 대체재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학교 재학생 A 씨는 “언론 보도를 볼 때 사실보다 기자의 해석이 먼저 전달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며 “언론을 전적으로 신뢰하긴 어렵지만 시민 스스로 다양한 매체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결국 저널리즘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공영방송 내부의 편집권 독립과 인사 운영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낙하산 인사와 정치권 개입은 앞으로도 뉴스의 객관성을 훼손할 것이며 시민들을 대안 미디어로 내몰게 될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앞서 언급한 우리학교 재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선 △정치적 편향을 최소화하고 사실 전달에 충실해야 한다(50%)△하나의 사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해야 한다(25%)△유튜브나 SNS 등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12.5%) 등의 응답이 기록됐다. 이는 언론에 대한 불신 속에서 시민들이 여전히 공정성과 균형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단 사실을 보여준다.

해외의 사례는 우리나라 언론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향을 제시한다. 유럽 공영방송의 경우 공적 기금과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며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다. 영국의 BBC와 독일의 ZDF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독립성을 유지해왔고 이러한 구조적 안정성은 곧 시민의 신뢰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 △검증된 정보의 우선 보도△사실과 의견의 분리△이해관계 충돌 회피를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도와 논평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언론이 회복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

다. 사실 보도와 논평을 철저히 구분하고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편집권을 독립시킬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언론인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 제고 또한 중요하다. 최근 언론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은 개별 기자의 태도나 취재 관행의 문제에서 비롯되기도 했다. 이를 볼 때 언론사 내부의 교육 및 훈련과 더불어 자율규제 기구의 실질적 기능 강화 역시 필요하다.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윤리 규범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가짜 뉴스와 유튜브 중심의 선동적 콘텐츠는 전통 언론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조 회수에 매몰된 기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사실 검증과 맥락 제공에 충실한 보도 기준이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언론 제작에 활용되는 시대인 만큼 알고리즘이 왜곡이나 편향을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디지털 저널리즘 윤리’ 또한 요구된다.

언론과 시민은 함께 변화해야 한다. 언론이 공정성 회복에 나서도 시민이 비판적 사고 없이 편향된 뉴스만을 소비한다면 결국 갈등은 해소되기 어렵다. 다양한 매체를 접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 및 검증할 때 시민은 ‘식견 있는 유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다. 언론이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민이 주체적으로 언론을 감시할 때 비로소 건강한 공론장이 복원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적 변화가 뒷받침될 때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한국 언론의 미래는 언론인과 시민 모두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있다.

*필터 버블(Filter Bubble):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사용자의 성향, 검색 기록,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맞춤형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현상

이나경 기자 10leenagyeo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전형 일정

구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5.09.22.(월) ~ 10.02.(목)	2025.11.17.(월) ~ 11.28.(금)
면접전형	2025.10.18.(토) 10:00	2025.12.13.(토) 10:00
합격자 발표	2025.10.31.(금) 16:00 예정	2025.12.26.(금) 16:00 예정
등록예치금 납부	2025.11.03.(월) ~ 11.07.(금)	2025.12.29.(월) ~ 2026.01.02.(금)

◆모집 전공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원자격증 취득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국어교육	•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스페인어교육	•일본어교육	•중국어교육	
	•역사교육	•일반사회교육	•유아교육	
	•수학교육	•상담심리(전문상담교사 2급)		
모집 과정	지원 전공			
교육학 석사 (야간수업)	•어린이영어교육	•독서논술교육	•문화콘텐츠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나. 외국대학, 대학사는 졸업자에 한해 지원 가능
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라. 지원전공의 관련학과(전공)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전공학점 30점이상 이수자

◆우대사항

가. 현직교사 장학금 지급
나. 교원자격증 기 취득자는 학교현장실습 및 교육봉사활동 면제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유웨이언어몰라이 Uwayapply.com)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 우편(등기),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접수 기한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5년 2회차 FLEX 정기시험 안내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년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하고 시행하고 있는 전문적인 외국어능력시험으로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공정하고 균형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입니다. *자격정보 안내 <http://flex.hufs.ac.kr>

1. 2025년 2회차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 발표일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2회	10.10(금)~10.16(목)	2025.11.09(일)	11.21(금)	12.12(금)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7:00입니다.
* 고사장, 응시 과목에 따라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LEX 듣기·읽기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민간자격이며, 말하기, 쓰기는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2. 응시자격: 제한없음

3. 평가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 1개 언어 선택 응시 (동시에 2개 언어 응시 불가)

4. 원서접수: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접수 가능

5. 응시료: 듣기·읽기 45,000원, 말하기 75,000원, 쓰기 75,000원
▶ 접수 수수료 : 1,200원
▶ 수험료 환불규정: 접수 기간 내 100% 환불
접수마감 이후~시험일 5일전 50%환불, 접수 수수료 환불 불가
시험일 4일전 이후 환불 불가

6. 결과발표

▶ 확인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입지원처

<http://flex.hufs.ac.kr> (문의) 02-2173-2537

▶ 성적유효기간: 시험일로부터 2년

7. 참고사항

재학생 IBT FLEX(영어, 중국어) 응시 자격

: IBT 시험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FLEX 정기시험(해당 언어)에 응시한 자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글과 함께 자라온 아이가

어릴 적 나의 세상은 책장 속이었다. 부모님이 책장 속에 넣어주시는 책 한 권 한 권이 나에게 크나큰 우주였고 꿈을 뿌리내리게 해준 나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나는 글의 매력에 흠뻑 빠져있었던 것 같다. 단어 하나하나가 만들어주는 문장과 세계가 그려내는 풍경들이 어린 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날 성장시켜줬다.

중학생이 돼서 비로소 글이 나에게 준 매력의 정체를 깨닫게 되었다. 난 글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나의 꿈이 마음 한 켠에 썩든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삶이 어느 순간 날 벼락에 세워 놓을 때마다 졸곧 글에게 기대게 됐다. 일기장 위에 메모장 위에 쏟아낸 내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하나 쌓여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갔다. 이때였을까. 글쓰기는 나의 위로이자 나의 무기가 됐다.

또 고등학교 시절엔 입시를 위해 평일엔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으며 독후감과 보고 서들로 나의 의견과 학술적인 내용을 잘 쓰는 법을 연습하게 됐다. 동시에 주말이 되면 블로그(Blog)에 내 일상과 머릿속 생각을 적어내려가며 나만의 문체와 목소리를 찾아가는 연습을 했다. 평일과 주말을 오가며 멈추지 않던 나의 글에 대한 열망과 애정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낸 밑바탕이 됐다.

그러다 문득 깨달은 순간이 있었다. 글은 나에게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세상과 마주하는 나만의 방식이었고 내 안의 이야기를 나에게 묻고 또 들을 수 있게 해주었으며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 해주는 등불이기도 했다. 책장을 넘기며 다른 이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펜을 들어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마다 내 안에 나를 알아가며 조금씩 더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고 챙기게 되었다. 글 안에서 나는 비로소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나다움으로 세상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용기를 얻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 우리 학교 학회인 오발칸(Oh! Balkan!) 블로그 팀장을 맡으며 처음으로 나를 위한 글이 아닌 우리를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한 글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경험인지 그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해 지금 외대학보 기자가 되며 나의 글쓰기 여정은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에 접어들었다.

이렇듯 순수했던 어린 시절부터 방황과 꿈이 공존했던 청소년기를 지나며 나는 글을 통해 조금씩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나만의 여행기를 써내려가고 있다. △글쓰기를 통해 나 스스로를 치유하며 △내 안의 꽃을 피우고 △다양한 경험△책을 읽으며 내면을 키워가며 나만의 색깔을 찾아온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시켰다. 글 속에서 자란 아이가 이제는 글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어른이 됐다. 이 꽃을 다 피울 때까지 나는 글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나만의 용기들과 진실을 담은 진심 어린 나의 글들로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내 사명이 됐다. 앞으로도 나의 이러한 여행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해봄 기자

[책 ‘H 마트에서 울다’를 읽고] H 마트에서 배운 사랑의 언어

밴드 ‘재패니즈 브렉퍼스트(Japanese Breakfast)’의 음악을 즐겨 들었다면 미셸 자우너(Michelle Zauner)의 글이 마치 노래처럼 다가올 것이다. 슈게이즈(Shoegaze) 음악 위로 선명한 감정을 새겨 넣는 자우너의 재능은 책 ‘H 마트에서 울다(Crying in H Mart)’에서 △가족△사랑△슬픔△음식이란 언어를 통해 고스란히 재현된다. 한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성장한 작가는 자신과 한국을 이어주던 어머니가 앞으로 세상을 떠나자 “나는 여전히 한국인일 수 있을까?”란 질문을 마주한다. 이 책은 작가가 한인 식료품점인 ‘H 마트’와 한국 음식을 통해 어머니와의 기억을 복원하고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그리는 동시에 단순한 애도의 기록을 넘어 사랑의 방식과 기억의 가치에 대한 깊은 사유를 전한다.

책에서 독자의 마음을 가장 울리는 대목은 자우너가 어머니의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이다. 그는 창작자로서 자신의 성취와 어머니가 평생을 바친 양육과 사랑을 다른 층위의 것으로 여겼으며 자신이 청소년기에 어머니의 삶을 “독선적인 태도로 알잡아보았다”고 솔직하게 회고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부재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어머니의 예술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동치는 사랑’ 그 자체였으며 이는 노래 한 곡과 책 한 권만큼이나 세상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일이었음을. 어머니가 차려낸 따뜻한 밥상과 가족을 위해 가까이 희생한 것들이 그 어떤 예술품보다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사랑의 가장 빛나는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란 사실을 말이다. 사랑 없인 노래도 책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 그 위대한 예술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자우너는 자신의 결혼식에서 “사랑은 행위이고 본능이고 계획하지 않은 순간들과 작은 몸짓들이 불러일으키는 반응이며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갓 지은 밥을 퍼주고 좋아하는 반찬을 기억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다. 이 책에서 음식은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의 방식’ 그 자체다. 자우너가 H 마트의 식료품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는 이유는 진열된 상품 하나 하나가 어머니의 사랑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란 존재가 엄마가 세상에 남기고 간 자신의 한 조각에 가장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문장은 깊은 울림을 남긴다.

재패니즈 브렉퍼스트의 1집 ‘저승사자(Psychopomp)’는 자우너가 암 선고 받은 어머니를 간병하며 2주 만에 완성한 앨범이다. 수록곡 ‘In Heaven’과 ‘Heft’ 등에서는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상실감을 가늠하며 고통을 토해내기도 하고 타이틀 트랙인 ‘Psychopomp’의 마지막엔 “괜찮아”라고 자우너를 위로하는 실제 어머니의 음성이 담겨있다. ‘저승사자’가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면 ‘H 마트에서 울다’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위들로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담담히 보여준다. 작가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의 ‘한 조각’으로 세상에 남아 있는냐고.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떤 ‘행위’로 기억하고 있는냐고 말이다.

윤교은 기자 10goeun@hufs.ac.kr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고]

울음과 친절함 중 하나를 선택할 땐 친절함을 선택하라

동네 사람들에게 ‘바보’라 불리는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포레스트 검프(Forrest Gump). 어린 시절 다리에 보조기를 차야 할 만큼 신체적 불편함을 안고 있었지만 이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누구보다 힘차게 달리며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 “난 가고 싶은 곳에 가기 위해 뛰었는데 그게 삶의 기회가 될 줄은 몰랐어요.”라는 대사는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조명한다. 포레스트에게 달리는 것은 삶의 기회를 마주하는 태도이다. 그는 순간순간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작은 성실함과 꾸준한 노력으로 삶을 만들어 나간다.

포레스트의 가장 큰 무기는 순수함과 성실함이었다. 그는 풋볼 스타로 이름을 알렸고 베트남 전쟁에서 동료들을 구하며 진정한 용기를 보여줬다. 또한 친구 버바(Bubba)와의 약속을 지켜 새우잡이 사업을 시작했고 큰 성공을 거뒀다. 열릴 보면 그의 삶은 행운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진심으로 해냈기에 얻은 결과였다.

포레스트 주변 인물들 역시 그의 영향을 받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삶의 의미와 평온을 찾아간다. 댄(Dan) 중위는 전쟁에서 다리를 잃고 절망 속에 방황했지만 포레스트와의 재회와 새우잡이 사업을 통해 다시 삶의 균형을 되찾는다. 제니(Jenny)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사회적 혼란 속에서 긴 방황과 고난을 겪지만 결국 포레스트에게 돌아와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평온을 얻는다. 이처럼 영화는 한 인물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과정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포레스트의 순수함과 꾸준함은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사람들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예상치 못한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낸다.

영화는 인생을 초콜릿 상자에 비유한다. 어떤 조각이 내게 올지 그 맛이 달콤할지 짭작해질지 알 수 없지만 순간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결국 그 조각들이 모여 한 폭의 그림 같은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인생은 우연과 선택의 연속이지만 진심과 꾸준함으로 임할 때 비로소 성장의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포레스트의 이야기는 △사랑△성실함△순수함△용기라는 평범하면서도 본질적인 가치들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영화 속 명대사처럼 나 역시 삶 앞에서 계산과 망설임에 갇히기보다 맑은 마음으로 과감히 달려 나갈 것이다. “Run! Forrest Run!”.

이나경 기자 10leenagyong@hufs.ac.kr

1107호 학보를 읽고

가을과 함께 찾아온 외대학보

여름의 공기가 차가워지며 가을의 시작을 알린다. 선선해진 날씨는 곧 다가올 중간고사를 의미한다. 도서관의 불빛이 더 환해지는 것 또한 이를 알리는 걸까. 한편 외대학보는 해결되지 않은 학내의 사안들을 묵묵히 조명하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107호에선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교통체증△소프트웨어(Software) 교과목 운영△설캠 식당 운영 축소△교내 알림 시스템 등이 담겼다.

3면에선 이문휘경뉴타운 사업에 따른 설캠 교통체증 문제를 조명했다. ‘래미안 라그라데’의 3,0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이후 설캠 주변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짐을 체감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파트가 설캠 주변으로 들어설 계획이다. 이를 대비한 적합한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어서 3면에선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과목 운영 실태 또한 다루고 있다. 해당 기사에선 ‘코드트리(Code Tree)’ 활용 방식과 비대면 시험에 대한 여러 지적이 담겼다. 더불어 학생들의 인식 개선 또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소프트웨어 활용력이 떨어지는 이들은 경쟁에서 소외될 수 있다.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학교는 이번 기사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면에선 우리학교 설캠 내 식당 운영 축소 문제가 다뤄졌다. 지난 8월 25일 교수회관 석식 운영 중단과 인문과학관 식당의 김밥 판매 중단이 공지됐다. 기존

에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에 근무하던 조리원들이 다수 퇴사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것이다. 운영이 중단된 두 서비스는 많은 학내 구성원이 활용했던 만큼 불편의 목소리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기회에 △식당에서 근무할 근로 장학생 모집△식권 발권 시스템 개선△조리원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학내 식당’을 만들 수 있었으면 한다.

5면에선 교내 알림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학교는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이하 앱)을 활용해 교내 구성원에게 주요 정보를 공지한다. 특히 일부 정보는 푸시 알림이 동반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 푸시 알림의 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불만이 많았다. 홍보성 공지에 따른 알림은 과도하게 발송되지만 성적 발표 등 핵심 정보는 제대로 알림이 오지 않았단 것이 불만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학교 앱 내 알림 시스템은 학교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학교는 학내 구성원의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해 외대학보가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번 1107호에서도 외대학보는 학교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오늘날 밤을 새우며 △취재△기사를작성△교열하는 외대학보의 모든 구성원들이 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학내 구성원 모두가 외대학보에서 제시된 학내 문제에 대해 고민해 줬으면 한다.

남우현(사회·정외 22)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1107호 학보를 읽고

끝나지 않은 여름, 끝나지 않는 문제

새 학기가 시작되며 초록빛이던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나무가 점점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알리는 듯하다. 이 고요한 계절은 책을 펴기에 더없이 좋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래서인지 평소엔 스쳐 지나던 외대 학보가 가을의 정취 속에서 문득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궁금해졌다.

3면에선 우리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명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과제 수행 시 드러나는 교육 설계의 취약점을 제시했다. 특히 과제 수행 시 일부 학생들이 비대면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시험 환경에서 생생형 인공지능의 부적절한 사용을 통해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자가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의 강의와 평가를 전면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생형 인공지능 사용은 공정한 평가에 장애가 된다. 실제로 과제를 수행하며 생생형 인공지능 사용 여부에 따라 결과물의 질과 완성도에서 큰 차이를 경험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학습 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면에선 학생 편의를 위한 학교 알림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학교는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지를 전달한다. 현재 학교 알림 시스템은 알림 발송이 가능한 시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공지들은 일괄적으로 발송돼 개별 학생이 원하는 알림만 선별적으로 수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동일한 공지가 여러 채널을 통해 중복 전달되거나 일부 공지는 앱과 문자로 동시에 제공되지만 다른 공지는 홈페이지에만 게시되어 학생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알림 거부 옵션이나 필요한 공지만 선별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개인화된 설정을 도입함으로써 중복 알림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고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11면에선 우리가 서로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시했다. 미움은 단순한 판단과 값싼 확신을 주지만 결국 자신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 비판은 문제를 겨냥하지만 미움은 사람 자체를 지워버려 관계와 가능성을 차단한다. 인간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데 미움은 이를 가로막는다. 따라서 미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미움이 없는 공동체는 고쳐 나가는 힘을 가지며 결국 더 건강하게 발전한다고 했다. 이 글을 통해 인간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또한 미움은 이 가능성을 부정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나아지려는 기회를 가로막아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대신 이해하려는 노력과 배려의 태도를 갖는다면 비판 속에서도 관계는 유지되고 사회는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배웠다.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현황 및 문제점을 조명했다. 지난달 기초수급자이신 분들에게 봉사를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그들의 삶을 지켜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을 접하니 마음이 아팠다. 외대학보에게 앞으로도 학교 안팎의 정보들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생생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

장한샘(자연·화학 25)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문턱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는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다. 며칠 뒤면 추석을 맞이하고 올해가 끝나기 까지도 100일이 채 남지 않았다. 계절의 변화와 함께 시간의 흐름이 실감되는 요즘 외대학보도 어느덧 세 번째 마감을 마치며 이번 학기의 절반 고지를 넘어섰다. 이번 1108호는 이전 호수의 신문 구성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기획 기사 3건과 사회문화 기사 2건을 다뤘다. 이번 1108호에선 어떤 기사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자.

먼저 4면 기획면에선 AI가 번역을 잠식하는 요즘 우리학교 어문 계열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뤘다. 최근 들어 AI의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번역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어문 계열에 강점을 지닌 우리학교의 역시 변화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제 AI는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이를 현명하게 활용하고 교육과정을 확대 및 개편해 학생들이 미래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5면 기획에선 서울캠퍼스 지하복합시설 동아리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불편 사항에 대해 짚었다. △소음△흡연△안전 문제로 많은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만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학생 측과 학교 측이 서로 잘 소통해 해당 공간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7면에선 사회적으로도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캥거루족’ 문제에

대해 다뤘다. 이 같은 캥거루족 확산 원인엔 △경제적 부담△불안정한 고용 현실△정서적 이유 등이 있다. 또 최근엔 독립 후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되돌아가는 ‘리터루(Returoo)족’ 현상까지 등장했다. 캥거루족의 문제는 단순히 청년 개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개인과 사회의 종합적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9면에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언론의 양극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언론의 지나친 정치적 편향은 시민들로 하여금 언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의 갈등을 고착시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언론이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검증된 정보의 우선 보도△사실과 의견의 분리△이해관계 충돌 회피 등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또 무엇보다 언론이 시민과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며 앞으로 우리 사회 언론이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한해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2025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이 1년 중 가장 마음이 가장 싱숭생숭해지는 시기인 것 같다. 계절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며 마음 또한 그 변화에 발맞추려 하다 보니 때론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곤 한다. 우리 모두 이 시간을 잘 견뎌내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외대학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

인간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칸트는 “당위는 능력을 함축한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풀이하면 어떠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진 자는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명언이 아닐 수가 없다. 자칫 추상적인 답변으로 끝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인간의 ‘행위 능력’이란 가장 단순하면서도 근원적인 힘을 그 답으로 내세우고 있으니 말이다. 우선 이 고언(古言)에 대한 감탄은 잠시 뒤로하자. 이 문장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해본다면 적어도 정치적인 면에선 그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에 18세기의 비해 하나도 발전한 것이 없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해야한다’는 것은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사회 그중에서도 정치와 관련해선 수많은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현실을 잠식하고 있다. 트럼프발(發) 관세 문제나 수도권 과밀화 현상 심화 등 삼권 분립의 축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눈은 ‘분열의 정치’란 세균에 감염되어 도저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여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난해 12월 3일의 밤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며 이른바 ‘내란’ 세력을 척결하라는 말은 이제 그들의 정체성이 돼버렸다.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됐으며 지엄한 법의 저울 앞에까지 올려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법의 심판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던 비상계엄의 문제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망령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있는가?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가 지닌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선 이 나라의 수재(秀才)들이 모두 모여도 부족한 상황이다.

개개인이 어떤 동기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지는 묻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그들에게 국가가 닦진 위기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늘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 누구도 다룰 수 없고 그 누구도 미룰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 없는 것 같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그들에게 스스로가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을 기르는 것보다 질의 상대방이 마이크를 잡는 태도가 더 중요한 것 같다. 선거 때마다 국민들을 위한 공약이라며 실상은 빈 껍데기다. 시급한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이들은 나라의 정부 조직 하나가 바뀌는 문제조차도 제대로 된 합의 하나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관용과 양보의 정치 규범은 또 어디로 간 것인가. 민주주의의 시작인 토론과 협의는 실종되며 서로가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은 우리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 아닐까 싶다.

오늘날의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를 받아 대의제 민주정치의 산물로 선출된 그들은 과연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당리당락을 위한 희생이 아닌 자신을 뽑아준 국민에 대한 희생을 하고 있는가?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당위’도 없다. 능력이 없다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를 다룰 권한도 없어야 한다. 언젠가는 조간신문에서 그들의 지루한 논쟁을 보지 않는 날이 오길 기원해본다.

·이승원(외대학보 편집장)

기자들의 한마디

외대학보 11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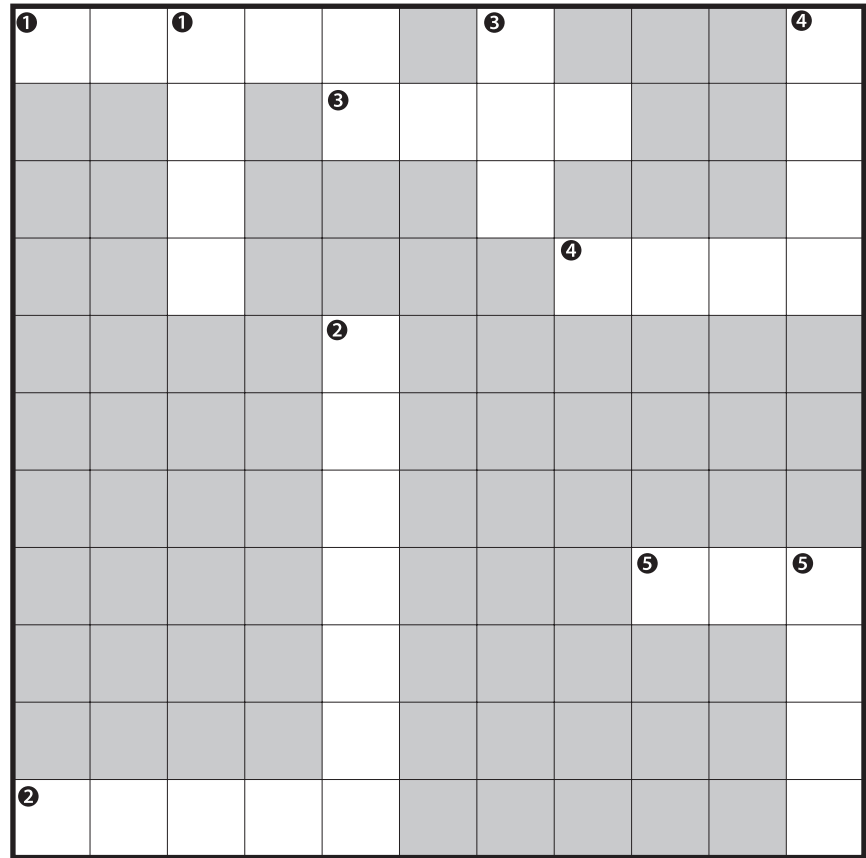
송주원: A+를 기원하며

백채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임재언: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한영빈: 남은 마감도 힘내요 :P

십자말풀이



가로

1. 우리학교 ○○○○전형(면접형) 1단계 합격자는 오는 11월 10일 발표되며 면접고사는 11월 15~16일 논술고사는 11월 22과 23일에 서울캠퍼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1면)

2. 만약 상대평가 비율이 개선된다면 학점 ○○○○으로 인해 우리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외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던 우려도 있다. 실제로 학점 ○○○○으로 성적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 (3면)

3. 청년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으로 남는 이유는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원인이 지목된다. (7면)

4. MBK 파트너스가 지난달 24일 사과문을 통해 대형마트 ○○○○에 추가 자금을 투입할 것을 발표했다. (8면)

5. 오늘날 청년들은 독립한 후에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가는 ‘○○○족’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7면)

세로

1. 이번 행사에는 무에타이의 전설 ○○○○ 반차맥 선수가 특별 초청되어 학생들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무에타이 시연과 원포인트 레슨을 진행했다. (2면)

2. 단순 텍스트 번역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변화에 발맞춰 현지 문화에 맞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 전문가 수요 또한 급증하는 추세다. (4면)

3.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지난 4월 세종호수공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 ‘생태계 교란 어종 포획’ 행사를 진행했으며 ○○○○ 및 큰입배스 등의 외래 어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정 구역에서 포획 활동을 수행했다. (8면)

4. 언론학자 ○○○○에 따르면 공론장은 시민이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간이다. (9면)

5. 장선이 기자는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특파원으로 파견돼 ○○○○ 등에서 취재 활동을 했다. (12면)

※파uzzle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8seungwo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이승원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현장을 뛰는 기자정신

장선이 기사를 만나다

장선이(아시아·인도 02) 기자는 지난 2007년 SBS 15기 공채 기자로 입사해 현재 보도본부 국제부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당시 특파원으로 파견돼 체르니우치(Chernivtsi)와 루마니아(Romania) 등지에서 취재 활동을 했다. 특히 우리나라 기자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르비우(Lviv)를 취재하며 해외 전쟁 지역에 최장기간(33일) 체류했다. 또 전쟁의 참혹한 현실과 반인륜적 범죄를 고발한 공로로 제20회 한국여성기사를 수상한 바 있다. 다양한 취재 활동을 이어가는 장선이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1. 우리학교 인도어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와 행정학을 이중전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인도어과를 선택한 것은 당시 BRICS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지원했습니다. 전공을 살리진 못했습니다. 행정학과를 이중 전공한 이유는 언론인으로서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회 △정치 정책 등을 다루는 기사를 쓸 때 행정학 지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어요.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저는 학창 시절 학교에선 비교적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사실 대학입시 삼수를 했기 때문에 동기들보다 나이가 많았습다. 그래서 더욱 부지런히 졸업해 빨리 사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었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못했던 게 지금도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다만 오래전부터 기사를 꿈꿨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교내의 학생들과 언론사 입사를 위한 스터디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Q3. 학창 시절 때부터 기자가 되기를 희망하셨나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기자가 되고 싶단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늘 집에 신문이 있었고 아버지가 취재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기자란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또 제 성격 자체가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저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식으로 궁금한 게 많았어요. 세상일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특히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로서 일을 하면 평생 좋아하며 할 수 있겠단 확신이 들었습니다.

Q4. 기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기자 준비생으로서 해보면 좋을 경험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글쓰기는 어느 정도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입사는 엄연히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선배들의 도움으로 3학년 때부터 스터디를 꾸려 함께 글을 쓰고 토론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입사하던 20여 년 전엔 지금처럼 언론사 인턴십(Intern Ship)제도가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기회를 찾아 나섰죠. 당시 스포츠지들이 명예기자 형식으로 대학생들을 뽑아 기사 쓰는 훈련을 시키고 실제 지면에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어요. 저는 스포츠조선 명예 기자로 활동하며 실제 언론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웠고 그곳에서 다양한 언론사 지망생들과 인맥을 쌓을 수 있었어요. 또 MBC 100분 토론 시민논객으로 1년간 활동한 것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매주 특정 주제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출연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발견해 그 부분을 지적했더니 화제가 됐어요. KBS 뉴스에서 ‘토론자 못지않은 시민논객’이라고 소개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언론 관련 경험을 부지런히 찾아서 도전했던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Q5. 지금까지 보도하신 사건들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가장 최근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현지 취재입니다. 그중에서도 피

란민 정착촌에서 만난 10살 소녀 베로니카(Veronica)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도네츠크 크라마토르스크(Донецька область)가 고향인 이 아이는 러시아군의 집속탄 공격으로 집을 잃었는데도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저에게 “전쟁이 정말 일어난 일이나가 한국에 꼭 알려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그 순간 전쟁이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현실이란 점과 미래 세대에겐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자 시절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지난 2008년 쌍용차 노조 파업 취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당시 금융위기로 쌍용차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반대하는 노조와 77일간 갈등이 이어졌어요. 저는 팽택 현장에서 몇 개월씩 교대로 취재했는데 그곳에서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직접 목격하며 기자로서 처음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 진실일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담아야 올바른 기사가 될까?’ 등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Q6.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당시 특파원으로 파견돼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와 루마니아 등에서 취재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특파원 임무를 맡게 되셨나요?

사실 기자가 되기 전부터 종군기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걸프전(Gulf War)을 보도하는 종군기자들을 보며 ‘전쟁이란 무엇일까?’ ‘기자가 되면 그런 현장을 실제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베트남전 참전용사이신 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으면서도 전쟁 현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우크라이나 취재 인력을 모집했을 때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버지의 반응이 달랐어요. 평소 제 선택에 한 번도 반대하신 적이 없었던 분이 “그 취재 안 가면 안 되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무섭지 않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이라 비교적 안전한 곳이에요. 별일 없을 거예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지께서 “네가 전쟁을 아니? 예측할 수 없는 게 전쟁이야. 전쟁에는 적군과 아군이 있지만 회생에는 적과 아군이 없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베트남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의 말씀이라 무게가 달랐지만 그래도 기자로서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다행히 지난 4월 12일부터 33일간 취재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Q7. 특파원 취재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이나 일화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르비우에서 취재한 전사군인 장례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11일 오후 3시 르비우 시청 앞 성당에서 고향을 떠나 전사한 군인의 합동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곳에서 주검으로 돌아온 아들의 관에 어머니가 입을 맞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함께 간 영상취재기자들과 같이 울었습니다. 아이 둘을 둔 엄마로서 그 심정이 너무 이해됐고 가슴이 아팠어요. 또 하나는 전쟁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변호사협회에서 만난 해리스티나(Харистина) 대표를 통해 러시아군의 성폭력 범죄 실상을 들었는데 방산의 일각만 드러났지만 굉장히 끔찍한 범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쟁이란 것이 단순히 군인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취재하며 정말 화가 났고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정확하고 생생하게 전쟁의 실상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Q8. 지난 2023년 ‘우크라이나 르비우 지역의 전쟁 참상’을 보도하며 제20회 한국여성기자상을 수상하셨는데 당시 소감이 궁금합니다.

평생 단 한 번 수여되는 상이고 여성 기자라면 꼭 받고 싶은 버킷 리스트(Bucket List) 같은 것이라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현장 취재의 진수를 보여준 수작이다”고 평가해 주셨고 “해외의 전장에서 한국 기자로는 최장기간 체류하며 전쟁의 참혹함과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를 치열한 기자 정신으로 고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함을 무릅쓰고 현장에 갔던 보람을 느꼈습니다. 특히 베로니카처럼 전쟁의 실상을 한국에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우크라이나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 같아 뿌듯했어요.

Q9.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나 목표가 궁금합니다.

지난해 1년간 프랑스 파리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연수 기간에 프랑스 그랑제콜(Grande École)에서 기후와 환경 관련 석사 과정을 수료했어요. 운이 좋게도 이런 기회를 얻게 됐는데 앞으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전히 현장 취재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어요. 기자로 있는 동안엔 현장을 뛰고 싶고 어디든 현장에 가야 한다면 언제든지 손을 들 거예요. 전쟁 보도 준칙과 대비 시스템이 생기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 분쟁지역 전문기자 양성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Q10. 기자 혹은 언론인을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언론사 관련 경험을 부지런히 찾아서 했던 것처럼 후배들도 학창 시절부터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길 바라요. 스터디를 통해 글쓰기와 토론 연습을 하고 인턴 기지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언론사가 아니어도 모든 다양한 경험이 자산이 됩니다. 무엇보다 세상일과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 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합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 딸이 기사를 한다면 말리고 싶어요. 물론 본인이 원한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요. 언론 환경이 많이 어려워졌고 현장에서 뛰는 일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자가 되고 싶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영빈 기자 09youngbin@hufs.ac.kr

Hansol

2025 한솔그룹
신입사원 공개채용

09.22(월) - 10.10(금)



공고 자세히
알아보기



우리는 당신이 일과 삶에 **몰입**하고 **성장**하도록 함께 합니다.

지원자격

- 국내/외 4년제 대학(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26년 2월까지)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그룹 내 타계열사 중복 지원 불가

채용방형

- 서류 전형
- SI 면접
- 실무 면접
- 임원면접

채용회사

한솔제지, 한솔로지스틱스, 한솔홈데코, 한솔테크닉스, 한솔아이윌스, 한솔PNS IT, 한솔인티큐브, 한솔케이칼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https://careerhansol.com>)

기타사항

- 전형 세부 내용은 각 계열사별 상이할 수 있음
- 서류접수 기간 이후 일정은 각 계열사별 상이할 수 있음
- 한솔인티큐브 및 한솔PNS IT부문은 기술테스트(Coding 등) 진행 예정